

2021 새해 새 설계

임택 광주 동구청장

“문화관광 ‘동구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인구 10만명 회복 가장 큰 성과
500억 동명동 도시재생 박차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육성 집중



• 학동 심거리 정비사업 추진
• 우수관 분리 문제 해결
• 동명동 주민 도로개설
• 도로부터 숲 힐수
• 안심할 수 있는 안

“문화·관광·인문이 어우러져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은 10일 “성공적인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추진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 회복과 함께 30~40대 젊은 세대, 청년들의 유입이 늘면서 지역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과거 쇠락하는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고 미래가 기대되는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구정장은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들어 일관 성과들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미로센터, 총장 22 개관 등 1차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3대 거점시설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각 지자체의 행정역량과 지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1위 달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역대 최대의 수상 실적(53건)도 올렸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5년 9만4000여 명까지 떨어졌던 동구 인구는 지난해 9월 10만 명을

회복했다.

임 구정장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비롯한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남·용산·선교지구 등 3곳의 도시개발과 계림7구역 등 10여 곳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향후 3만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다.

또 ‘인구유출방지’와 ‘유입 확대’를 위해 원주민과 전입인구 모두가 원만히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선 7기에만 역대 최대치인 1465억 원의 예산 확보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다.

주요 재정확보 내용을 보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200억), 인쇄의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300억), 산수동 도시재생 인정사업(50억),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사업(40억) 등으로 동구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킨다는 임 구정장의 계획과 연속성에 있다.

동구 문화벨트 실현과 더불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임 구정장의 구상에는 오랫동안 동구에 거주하며 구의원, 시의원으로서 이 어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던 경험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임 구정장의 2단계 계획이 실현을 앞두고 있다. 500억 원이 투입되는 동명동-인쇄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광주 최초의 청년자립 주거모델인 동명하우스 조성, ‘문화와 빛이 되는 동명마을’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인쇄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 인쇄박물관 개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활기를 불어넣고 상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임 구정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이에 대응하는 신산업 중심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온 각종 사업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구가 광주의 멋과 흥,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광주대표 문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해 시민들,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문화관광중심 자치구’로 ‘동구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상호 광산구청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 참석해 민관산학 협력 경제거버넌스 광산경제혁신회의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과 1급 포상을 받았다.

광산구 지난해 정부 공모 103건 선정 ‘성과’

사업평가 44건 수상 사업비 1074억
구청장, 민주당 우수정책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총 103건 선정됐으며, 사업 평가에서 44건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시상금 235억원 등 총 107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구정 목표를 ‘내 삶이 행복한 광산’으로 설정하고, 행복정책관 신설을 비롯한 기업경제와 확대 등을 조직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행복과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기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구정목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사업평가에서 357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광산구는 코로나19구복을 목표로 경제혁신회의·자동화선별진료소·농행복프로젝트 등 혁신 사례

를 발굴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1년 보육정책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보육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상호 광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민관산학 협력 경제거버넌스 광산경제혁신회의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과 1급 포상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에서 10억원,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10억원, 중기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 특화사업’에서 41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역대급 성과를 냈다.

김상호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대전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지역민과 시대의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겠다”면서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힘든 시기를 주민과 함께 이겨내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직자와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올 공무원 2만 5000명 교육훈련

243개 과정...총 791회 실시

능력·자질·역량 높이기 주력

광주시공무원교육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6기 중견간부리더 과정, 오는 18일 열릴 제1기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교육훈련은 총 243개 과정, 791회, 계획 인원 2만4998명이 목표다. 이 중 집합교육은 70개 과정, 158회, 4448명, 사이버교육은 173개 과정, 633회, 2만55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우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과 그린뉴딜, 지방분권, 소득주도성장, 광주형일자리, 적극행정 등 국·시정 정책과제 과정을 개편해 편성했다.

또 신규 임용자의 기초실무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회계, 공공언어, 건설기술, 사회복지 분야의 교육을 신설·보완했고, 특수분야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특별사법경찰, 노동 분야에 대해 정부 공모사업, 면접관 역량 분야를 신설해 운영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현장 중심의 현안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역량교육·평가의 과제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치유 과정을 개설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적인 교육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의 횟수를 대폭 확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사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5개분야, 16개 사업으로 ▲벼 생산비절감기반조성 등 식량작물분야 3개 사업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시범 등 원예·정년농업인 분야 6개 사업 ▲주산작물 생력기계화 기반조성 1개 사업 ▲농촌융복합산업수익모델시범 등 농촌지원분야 4개 사업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등 도시농업분야 2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8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시범사업장이 광주시이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인 및 단체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지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 3300kg 유통차단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kg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3058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시중유통농산물 1198건 등 총 4256건에 대해 잔류농약 314항목을 검사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73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을 확인했다.

농산물별 부적합 내역은 ▲썩자 14건 ▲부추 9건 ▲참나물, 취나물, 쌈추 각 4건 ▲고구마순, 당귀, 방풍나물, 상추 각 3건 ▲갯, 볏동, 세발나물, 아욱, 열갈이, 오이 각 2건 ▲가지, 갯방풍, 고들빼

기, 고춧잎, 들깻잎, 달래, 머위잎, 메밀순, 무숙음, 미나리, 썬배추, 유채, 청피망, 치커리 각 1건으로 총 29품목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다이아지논 10건 ▲플루오피람 9건 ▲프로사이미돈 8건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각 6건 ▲플루벤디아미드 5건 ▲펜디메탈린 4건 ▲알라클로르, 클로로탈로닐 각 3건 ▲옥사디아존,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피리다논, 피리달릴 각 2건 ▲나프로파미드, 노발루론, 아이소프티올레인, 엔도살판, 플루디옥소닐, 피리프록시벤 각 1건으로 총 28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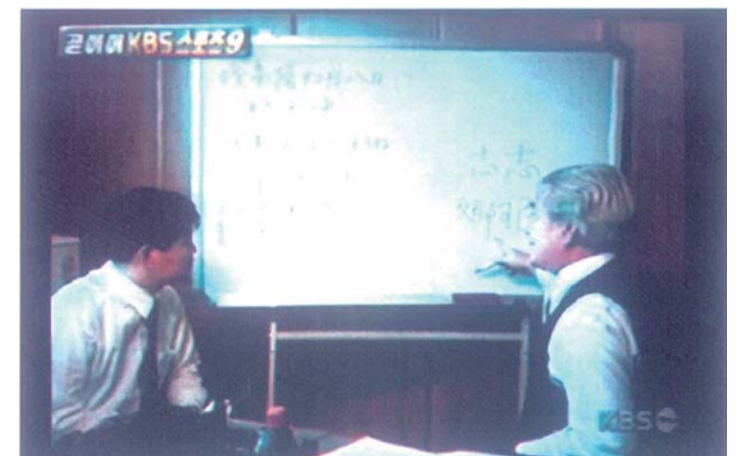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